

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않는, 이미 범위가 설정된 일부낙농인의 도태로 이어지고 있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진정한 자율경쟁체제의 확립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단합을 이룰수 없다. 이에 다시 한번 촉구하건데 정부와 낙농에 관련된 단체와 협회는 집안의 아흔아홉마리의 양보다 밖에서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데 온힘을 다해야 한다.

그 길만이 진정한 단합을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낙농산업의 합리적발전을 이룩해 낼수 있다.

둘째 모든 낙농인이 적극적인 자

세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일은 말과 계획보다도 실천이 중요하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실천이 없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낙농인의 문제는 낙농인에 의하여 낙농인의 힘으로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함으로써 자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야 한다.

셋째 운영진은 건강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은 많은 시련을 경험해 왔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는 지극히 소수 지도자들의 공명심과 이

기심에서 비롯된 피해의식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다. 그들은 자조금 운영에도 끈지않은 눈길을 던질 것이 뻔하다.

이에 진정으로 성공적인 자조금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한치라도 의심의 여백을 남겨서는 안되며 수시로 낙농인에게 사업내용을 의논하고 명확한 결과를 공개하여 완벽한 믿음을 회복하고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위기상황에 봉착된 우리 낙농산업이 자조금 제도의 힘찬 운영에 힘입어 명쾌하게 회생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다. ☺

낙농자조금으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자



우용제

충북 자조금 추진위원

“

현재의 낙농업을 지키는 데는 우리 낙농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낙농가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때도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이란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의 불황을 헤쳐나갈 방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

작년에는 사상 최악의 IMF 한파로 막심한 피해를 입히더니 그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사상 유례없는 수마가 온 나라를 할퀴고 지나가 이종고를 꺾어야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속에서 과거 생산에만 전념하던 낙농가가 이제는 소비에까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시점에 도달 하였다.

30여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진흥정책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의한 축산물의 소비증대에 힘입어 거시적인 발전을 했으나 최근 지나친 유품소비위축으로 쌓여만가는 분유 적체가 파산지경으로 치달아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에 지난 5월11일 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정부의 강력한 원유가 인하방침을 유보시키기 위해 최소 접근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원유가 30여원을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kg당 5원씩 자조금을 지출하여 낙농가의 활로모색을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며 거부할 수

없는 속명으로 낙농가는 받아 들이
야 할 것이다.

시유와 유제품의 소비는 둔화되
고 원유는 증산되는 이런 상황속
에서 낙농업과 낙농가 모두의 미
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지게 담당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과거 우유과동을 겪을 때마다
보아왔듯이 그 최종적인 피해는
낙농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증산으로 인한 피해도 결국은
낙농가의 몫일 수밖에 없다.

낙농업은 그동안 부분적인 개
량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비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우유가
낙농가와 고락을 같이하면서
농가소득의 중요한 밑천이
되어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는 다분히 감상적인 기분만으로
오늘의 불황을 타개할 순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낙농가 스스로가 나서
서 우유의 중요성을 홍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념으로 일심단결해
서 한 농가도 낙오자가 없이 자
조금 조성에 참여 하여야 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우리 낙농가는
힘이 약한 까닭에 이리저리
채이면서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던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의 실의와 좌절에
빠져버리면 영원히 스스로를
늘숙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자조금 사업은
낙농가 소득은 물론이고 권익과
도 직결되는 문제로 낙농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도시자본으로부터 낙농
가를 보호하고 안정적 생산기
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 사람의 낙
오자가 본인은 물론 낙농가
전체의 피해를 줄 것이다.

현재의 어려운 불황속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결집된 우리 낙농
가의 역량만이 경쟁력

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낙농업을 지키는 데는
우리 낙농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낙농
가를 위해 희생하고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아무리 어
려워도 그 때도 어딘가에
길이 있을 것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보겠
다는 의지만 있다면 오늘의
불황을 헤쳐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낙농가 여러분 우리 낙농
가가 뭉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지고 만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협회에 힘을 실어주고 보
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
여 자조금으로 인한 정책대
안을 발굴하고 낙농현장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서 현
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낙농인 모두는 이에 참여하
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권유하며 우유마시기 운
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자 한다. ☺

자조금은 우리가 이룩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최원선

파스티르 자조금 추진위원

개인적인 사업발달과정에 스
스로 노력하여 성공했다는 모
델을 관

찰해 보면 개략적으로 경제
적 지위 향상과 덕망의 수준
향상 즉 대내

외적 인격 향상을 말할 수
있다 하겠다.